

한다면 하는 경기지부, 도약 준비!



2월 27일(화)~28일(수), 금속노조 단양수련원에서 운영위원 수련회를 진행했다. 지부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13기 1년차 사업계획과 교섭·투쟁 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최근 2년동안 1,500여명의 신규 조합원이 합류하며 경기지부 조합원이 1만 명을 넘어섰다. 양적 확대에 발맞춰 질적 도약을 위한 **1천 간부 육성**이 핵심 사업이다. 상반기 교섭위원 학교, 하반기 노동교실, 교육지 발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원 전체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4월 체육대회**, **10월 축구대회**도 중요 사업이다. 정부의 반노동 정책, 불평등 양극화 심화에 맞선 **반윤석열 투쟁**, **고용안정 투쟁**은 당연하다. **지부 미조직위원회** 구성은 지부의 양적 확대에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집단교섭을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방향에서 **경기지부 공동요구안**을 논의했다. 대각선 사업장의 단체협약 수준을 높여 집단교섭 진입 가능성을 형성해간다는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했다. 조별 토론-전체 토론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3월 첫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공동요구안을 최종적으로 다듬을 예정이다.

3개사업장, 전년도교섭 마무리 길었던 2023년, 이제 다시 미래준비



대창지회

일부 부서 생산현황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이전 같지는 않다. 23년도 적자폭이 304억원에 달한다. 시급 100원+격려금 80만원, 최종 제시안은 기대에 이르지 않지만 지회는 결단했다. 단체협약 임금 피크제 관련 진일보한 사항 쟁취는 소기의 성과다. 다시 한번 대창기운 모아 24년 교섭과 투쟁, 미래를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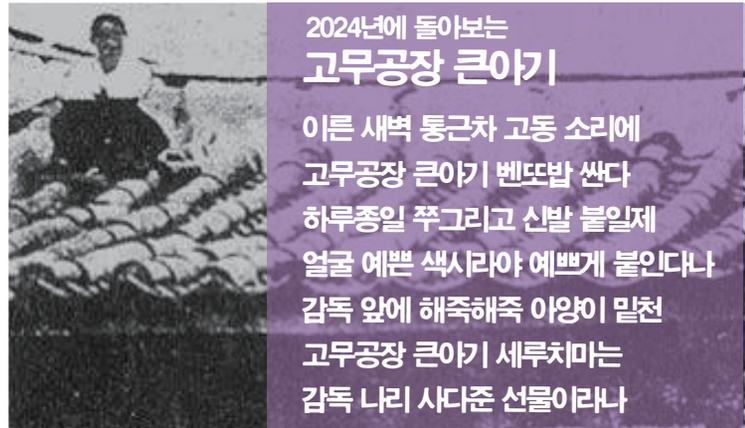
현대케피코지회

2월 2일(금), 23년도 사업장 보충교섭 조인식을 진행했다. 성과격려금이 쟁점이었다. 현대그룹은 계열사 간 격려금 차등 지급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만들어왔다. 그룹사 방침에 제동을 걸고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지회의 목표다. 해를 넘겨서도 교섭·투쟁할 수 있었던 건 현대케피코지회 전체 조합원의 꺾이지 않는 마음 덕분이었다.



한국호아전자지회

지회 목표는 첫째도 고용, 둘째도 고용. 설비 반출, 본사 방침 등으로 고용불안이 예상되는 상황. 조합원 전체의 뜨거운 열의와 투쟁으로 고용안정 합의를 이뤄냈다.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까지이지만 이제 막 첫 걸음을 딛었을 뿐이다. 작년에 보았듯 기초체력은 탄탄하다. 올해를 위해 다시 마음을 모아간다. 미래는 우리가 만든다.



2024년에 돌아보는
고무공장 큰아기

이른 새벽 통근차 고동 소리에
고무공장 큰아기 땀뺀다
하루종일 쭉그리고 신발 붙일제
얼굴 예쁜 색사리아 예쁘게 붙인다나
감독 앞에 해죽해죽 아양이 밀친
고무공장 큰아기 세루치미는
감독 나리 사디준 선물이라나

오는 3월 8일(금) 낮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전국 노동자대회**가 열린다.

3.8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5만 명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가혹한 노동조건을 견디다 못해 “빵과 장미를 달라”고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날을 계기로, 1917년 러시아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평화”를 내걸고 싸운 대규모 파업을 거치며 세상에 등장했다. **빵은 굶주림을 해소할 ‘생존권’을, 장미는 ‘정치 사회적 권리’**를 의미했다. 이후 매년 3월 8일 전세계 노동자들이 이 날을 기려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권리를 외치는 날로 자리잡았다.

1920-30년대 평양의 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이 불렀던 이 노래(고무공장 큰아기)는 당시 식민지 여성들의 현실도 지구 건너편과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대공황의 여파는 당시 자본주의의 가장 밑바닥 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에게 가장 가혹하게 닥쳤다. 1931년 5월 고무공장 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자 ‘강주룡’은 평양성의 을밀대 12미터 지붕 위에 올라가 한반도 최초의 고공농성을 펼쳤고, 임금 삭감과 해고를 철회시키고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투쟁을 벌여 한국 노동운동사 초기 역사에 굵은 획을 그었다.

2024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100년 여 전 선배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헌신을 떠올리고 오늘의 과제를 돌아보며 **우리 사회와 일터를 더욱 평등과 존중의 현장으로 만들어 갈 고민을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